

일주문



제17회 포교사 고시 실시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2월 19일 전국 8개 고시장에서 제17회 포교사 고시를 실시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취임
前 불교중앙박물관장 범하 스님은 2월 22일 통도사 성보박물관장으로 취임했다.



BBS 우수포교프로 지원
한국불교 금강선원 총재 활안 스님은 2월 28일 BBS불교방송 사장실에서 BBS 우수포교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한 1000만원을 전달했다.



제5기 승만경 강좌
이인자 승만경연구회 회장은 3월 13-5월 1일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에 제5기 '승만경 강좌'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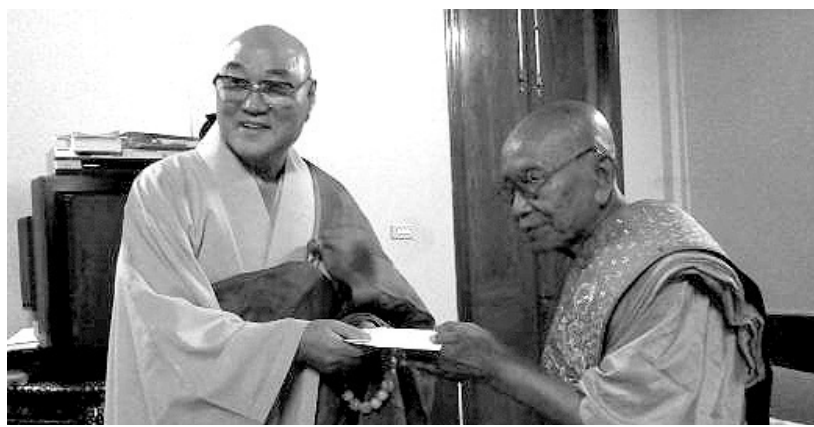


제17기 국제포교사 선발
배광식 국제포교사회 회장은 3월 18일 제17기 국제포교사 연수생을 선발, 3월 31일-10월 13일 연수를 실시한다.

“100년 내다보고 돕는다”

월서 스님, 천호희망재단 설립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사람을 키웁니다. 캄보디아 인재봉사는 먼 미래를 내다본 양국관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조계종 원로의원 월서 스님이 2월 7일 캄보디아 승왕 템플 스님 초청으로 프놈펜 승왕정을 방문해 캄보디아 벽오지 학교 교과서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교과서 지원은 캄보디아 정부와 승왕정 요청에 의한 것으로 월서 스님은 캄보디아를 돕기 위해 향후 ‘천호희망재단’을 설립해 재정상태가 열악한 캄보디아 북서부 뽀레아비히어 주와 오드르민제이 주 학교 중 매년 1-2개 교를 선정해 교과서를 지원한다. 월서 스님은 1차로 뽀레아비히어 주 종산군 소재 레이다 소말리 고등학교에 교과서를 지원했다. 월서 스님은 “은사 금오 스님이 1964년 캄보디아에서 열린 ‘세계불교도 대회’에 참석한 인연이 깊다”며 이번 지원의 동기를 말했다. 스님은 이어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사람을 심는다(심년수목백년수인 十年樹木百年樹人)는 고사를 들며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는



월서 스님(사진 왼쪽)이 캄보디아 승왕 템플 스님에게 교과서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일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유대인에게는 ‘자식에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배워 주라’는 말이 전한다”며 캄보디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캄보디아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템플 스님은 “최근 캄보디아 여성들이 한국인과의 결혼이 잦아지고 있다. 한국불교계가 캄보디아 이주여성들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부탁 한다”고 말했다. 한편, 캄보디아는 사회를 젊어지고 나날 40-50대 남자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 국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는 킬링필드 이후 인구 40%가 14세 미만의 아이들로 구

성돼 수많은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또 도시를 제외한 농촌 지역은 정부 재정 부족으로 교과서가 턱없이 부족하다. 심지어 선생님들만 교과서를 갖고 수업하고 학생들은 책 없이 배우는 실정이다. 월서 스님은 “오늘날 베트남이 동남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데는 호치민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베트남 미래를 위해 27명의 인재들을 러시아에 유학시킨 것이 컸다”며 불교계 캄보디아 재건을 위한 한국불자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후원계좌 011759-01-001326(우체국: 금오선수행연구회)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순천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총림 송광사의 새주지로 무상 스님(사진)을 임명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총림은 대중이 많지만 예산이 적어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다. 방장 스님과 아른 스님들을 모시고 잘 소임을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은 “주지 소임을 잘 할 수 있도록 원장 스님이 지

켜봐 달라”고 화답했다. 전달식에 이어 무상 스님은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자비나눔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무상 스님은 성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5년 도견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같은 해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서울 봉은사 주지, 영월 범홍사 주지, 중앙승가대 총동문화장과 학교법인 승가학원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현재 하남 광덕사 주지, 승가학원 이사를 맡고 있으며 지난 해 4월 법규위원장에 선출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제10회 유심작품 수상자 선정

만해사상실천선양회(이사장 오현)는 2월 22일 ‘제10회 유심작품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후원계좌 011759-01-001326(우체국: 금오선수행연구회)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동국대, 영진위와 영화영상 MOU체결

동국대가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식)와 영화·영상 미디어 교육협력 활성화에 나선다.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2월 23일 김의식 영화진흥위원장과 동국대 본관 로터스에서 ‘동국대-영화진흥위원회 영화·영상 미디어 교육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향후 >전문인력 교류 및 관련 시설기재 상호협력 >교육사업 프로그램 개발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홍보 >협력사업 협의회 구성 등을 추진한다. 한편,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2월 22일 동국대 본관에서 이혜숙 한국병원 약사회 회장과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Pharm-MBA 과정, 약학대학 및 약학대학원 장학 및 학술교류 협약을 맺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1학년도 중앙승가대학교 학위수여식
중앙승가대(총장 태원)는 2월 23일 교내 대강당에서 2011학년도 제30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진관·퇴휴 스님 등 2명이 박사학위를, 불교학과 6명 사회복지학과 5명 등 11명이 석사학위를 받는다. 또, 64명이 학부를 졸업했다. 대학원 총무원장은 진관·퇴휴 스님이, 학부 수석(총무원장상)은 역경학과 정현 스님이 선정됐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인사> 약사사 주지에 지준 스님 직할교구 사무국장장에 성진 스님



서울 약사사 재산관리인에 前 중앙종회 부의장 지준 스님(위)이, 직할교구 사무처 사무국장장에 성진 스님(아래)이 임명됐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20일 지준 스님과 성진 스님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자승 스님은 “열심히 주지 소임을 수행해 신도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성진 스님에게는 “직할교구는 인사과업무가 투명하고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지준 스님은 1966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했으며, 1978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했다. 은사는 법인 스님, 지준 스님은 울산 월봉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극락암 호구선원, 영축총림 선원에서 3안거를 선만했다. 현재 통도사 부주지다. 직할교구 사무처 사무국장 성진 스님은 1993년 통도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했으며, 1998년 통도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했다. 은사는 월성 스님, 성관사 대각선원과 고불총림 선원에서 12안거를 선만했다.
노덕현 기자

“노스님들 모시고 싶습니다”

‘행복한 동행’ 준비 중인 흥천 자명사 지명 스님



“소임 없이 한주로 머물던 노스님의 방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온돌방을 덥힐 형편이 안 되겠다는 말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해 전 추운 겨울 강원도 한 사찰에서 한 노스님을 만난 흥천 자명사 지명 스님(사진)의 말이다. 지명 스님은 노스님에 대한 안타까움을 잊지 못하고 원력을 세웠다. 스님은 흥천 자명사를 요양사찰로 만들고 승려노후복지시설로 꾸몄다.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사단법인 ‘행복한 동행’을 준비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요양사찰 자명사는 교구본사 단위가 아닌 개별사찰로는 최조이다. 구좌형 요양시설이 아닌 재산이 없는 스님에게는 무보시로 운영되는 시설이다. “자명사 요양시설은 종단을 초월한

승가공동체입니다. 어느 종단소속 스님이든지 세납65세 이상이면 입소가 가능합니다.” 자명사는 3월부터 우선 세납65세 이상의 비구니 노스님들부터 모실 계획이다. 최대 30인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형 요양사찰이 구비돼 있다. 1인의 개인실 배치도 가능하다. 자명사에는 사리가 봉안된 적멸보궁과 요사채가 있다. 노스님들의 열반

이후 부도를 위한 공간도 300기 규모로 별도로 마련돼 있다. 지명 스님은 시설 문제로 비구니 노스님들부터 입소를 받지만, 비구 노스님들도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사부대중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수행공동체를 꾸꾸고 있다. “스님들 개인이 노후대책을 세워야 하다 보니 개별화·사유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것이 승가 내에서 갈등의 불씨이기도 합니다. 노승에 대한 복지대책은 불교계 전체의 과제입니다.” 스님은 요양사찰 자명사를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사단법인 출범도 그 일환이다. 특히 스님은 재가불자의 도움을 받아 양·한방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봉사단 운영과 뜸뜨기와 침뜸기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명 스님은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033) 434-1571
조동섭 기자

2012학년도 전통범음·범패연구원 신입생 모집안내

불교의식은 불교학문과 더불어 수행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법한 불교의식이 곧 수행의 연속이라는 걸 불제자는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불자라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의식은 기본이라 하겠습니까. 본 전통범음·범패연구원의 설립목표는 부처님 사상을 기본으로 원만광대한 원력으로 보살도를 실천하여 불조의 혜명을 잇는데 있으며 한국불교의 일이 담겨져 있는 불교전통의식을 기초부터 상주권공(범음·범패) 과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전문교육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의 신입생 모집은 각종 불교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배우실 기회가 없었던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승, 속, 종단, 종파에 관계없이 불교전통의식에 관심이 있고 또 불·보살님 전에 지극한 정성으로 올리는 음성공양인 범음·범패와 작법부, 각종 불공, 천도의식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 입학안내 ❖

- 1. 모집과정: 범음·범패 과정(상주권공)
2. 입학대상: 승려, 전법사, 포교사, 재가불자 등 종단에 관계없이 가능함.
3. 교육기간: 2년 과정(방학 없이 특별휴강 있음)
4. 접수처: 한국불교태고종 광주·전남 종무원
5. 연락처: 총무 010-2073-5070 / 062-365-5000
종무원 062-375-1820 / 062-381-0944
6.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9-7번지
7. 제출서류: 입학원서, 수강신청서(이상 본 연구원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8. 접수기간: 불기 2556년 (2012) 2월 1일(음. 1. 10) 수요일부터 3월 3일(음. 2. 11) 토요일까지
(청강생, 편입생 수시접수 가능)
9. 입학식 및 개강일시: 2012년 3월 9일(음. 2. 17) 금요일 오후 12시
*강주: 상진 스님 (前 보우승가대학,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불교의식반 강주, 現 안장불교대학 법배학과 강주)
*강사: 해광 스님·도원 스님

❖ 강의내용 ❖

Table with 2 columns: 1학기, 2학기. Content includes '기초 과정' (Basic Course) and '천도 의식 본 과정' (Funeral Ceremony Main Course) for both semesters.

한국불교태고종 광주·전남 종무원
전통범음범패연구원 원장 호산 강주 상진